

# 전국 기업경기 반등 조짐...광주·전남은 악화일로

### 10월 기업심리지수 전월 대비 6.0P 하락 vs 1.7P 상승 '대조'

### 내수 침체 장기화에 무역수지도 폭...다음달 전망지수도 악화

전국 기업 경기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광주·전남 기업들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달 제조업,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을 뿐 아니라 다음달 전망도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역민들의 소비 침체 및 수출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전남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버텨낼 체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광주·전남지역의 530개(제조업 254개·비제조업 276개) 기업의 체감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4.6으로 전월 대비 6.0포인트(p) 하락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심리지수이다. 지난 20년간의 장기평균치를 100으로 두고, 100 초과시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CBSI는 지난 8월

(100.9)로 회복세를 보인 뒤 3달째 하락하고 있다. 전국 제조업 CBSI가 92.6으로 1달 전보다 1.7p 상승하는 등 기업 체감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비된다.

광주·전남 기업들의 다음달 기업 체감경기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망 CBSI는 83.1로 전월 대비 8.5p 하락했다. 구성지수의 기여도를 보면 자금사정은 1.3p 개선됐지만, 생산(-3.1p), 업황(-1.6p), 신규수주(-1.4p), 제품재고(-1.2p)가 전체적인 하락을 견인했다.

내수 부진에다 수출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도 지역 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이 최근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

르면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47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무역수지는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 9월 기준 9억9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무역수지 흑자(15억 9500만 달러) 규모에 비하면 37.5%나 감소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엔 견줘 각각 27.2%, 8.6% 줄었다.

제조업 뿐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비제조업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광주·전남 비제조업 CBSI는 91.5로 전월 대비 4.0p 하락했고, 전망 CBSI 역시 4.4p 하락한 90.7로 집계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채산성(-1.8p), 매출(-1.4p), 자금사정(-0.4p), 업황(-0.3p)이 하락을 견인했

다. 특히 소비침체로 인해 매출의 경우 전월보다 2.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비제조업 기업들의 경영여로서황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이 꼽혔다.

지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니 지역민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또 이달 광주·전남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지표들이 여전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역민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는 94.9로 장기평균치(100)를 하회했다. 특히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지난 8월 -0.7p 감소한 뒤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HS효성첨단소재 지속가능성 평가 '플래티넘 메달' 획득

### ESG 상위 1% 최상위 등급

HS효성첨단소재가 2024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했다.

29일 HS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는 HS효성첨단소재를 상위 1%에 해당하는 83점을 부여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골드 메달'을 획득했던

HS효성첨단소재는 올해 평가 참여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모든 사업장 배출량 관리 시스템 및 'SBT'(과학기반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공급망 관리 정책 제정, 공급망 실사 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기업인 에코바디스는 기업 ESG 정책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 기관이다. 전 세계 180여개국 13만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 인권, 윤리, 공정거래, 공급망 관리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조용수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등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맞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통해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순천대에서 전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

### 15개팀 경쟁...9개팀 선정 지원

'2024년 제 25회 전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가 2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열렸다. <사진> 벤처동아리 경진대회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유도,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총 360여 동아리가 참여했다.

전남에는 8개 대학의 104개 벤처동아리가 운영 중이며, 전남도는 대학에서 추천한 22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1차 심사 서류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이 경쟁에 나섰다.

전남도는 발표심사와 질의응답으로 9개 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입상한 동아리엔 2025년 동아리 지원금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시제품 제작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대학창업보육센터, 예비·초기 창업 패키지, 전남도창업 플랫폼 운영 등 초기 창업기업 지원부터 벤처펀드 투자, 글로벌 으뜸 기업 지원까지 체계적 성장 지원을 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신보 금융발전유공 '포용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

### 금융위·금감위 금융의 날 행사

전남신보보증재단은 29일 서울 FKI타워 컴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발전유공 포용금융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금융의 날은 금융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금융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저축·투자, 혁신금융, 포용금융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포상한다.

전남신보는 전남도민의 서민금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포용금융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됐다. 포용금융 부문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신보는 고신용부터 저신용까지 '누구나', '충분하게' 회복지원 금융 패키지를 운영, 지역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신보는 또 전국 최초로 전남도와 22개 시·군 매칭출연을 조성하여 이차보전과 보증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차별화된 재기지원 생태계 구축으로 4년 연속 재기지원 우수 재단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전남신보는 지난 7월 31일 창립 23주년

을 맞아 '미래비전 2030 선포식'을 열고 향후 5년간 ▲전남경제 활력제고(보증공급 14조원, 재기지원 2만개 업체) ▲미래까지 창출확산(경영지도 4만개 업체, 비대면 보증이용률 50%) ▲지속가능 경영구현(출연금 5000억원, 고객만족도 1위)이라는 '미래비전 2030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바 있다.

전남신보보증재단 이강근 이사장은 "이번 대통령표창은 도내 29만 소기업·소상공인이 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결과"라며 "전남도의 경제발전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은행 국내 거주 외국인 특화 체크카드 출시

### 캐시백 제공·후불교통 카드 기능

광주은행은 지난 28일 국내 외국인 거주자 특화 체크카드인 'Together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캐시백 제공, 후불교통 기능 탑재 등 편의성을 개선한 신규 상품을 마련했다.

Together 체크카드는 12세 이상 외국인 거주자 중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거소증을 보유한 경우

발급 가능하다.

기본 캐시백 혜택으로는 조건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제공하며, 전월 실적 및 월간 통합 캐시백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고객들의 카드 소비 성향을 분석해 서비스를 구성, 이용 빈도가 높은 커피·쇼핑·주유·백화점·슈퍼마켓·영화·교통·편의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 0.2%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추가 캐시백은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

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통합 캐시백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 밖에도 체크카드에는 후불교통 기능을 탑재, 금융 수수료·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외화 환전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체크카드 발급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12월부터는 광주은행 모바일앱뱅킹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이번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출시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카드 소비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령층에 특화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는 세계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용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용자 등 금융 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제공한다.

/연합뉴스

##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 24% "구직 활동 거의 안한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2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이상 및 졸업생 1235명 중 60.5%(748명)가 소극적 구직 상태였다.

소극적 구직의 형태로는 '형식만 갖춘 의례적 구직'이 30.9%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 등이었다.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 서'라는 답변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러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0.1%) 순이었다.

적극적 구직자들은 올해 평균 6.3회 입사 지원했으며, 이중 서류 전형에 합격한 횟수는 1.4회로 평균 합격률은 22.2%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서류전형 평균 합격률(28.3%)보다 6.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체 2938명 응답자 가운데 36.5%는 올해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작년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 비중(30.3%)보다 6.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작년보다 취업 시장이 좋다'는 응답 비중은 3.2%에 그쳐 작년 조사(3.6%)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청약 경쟁률 773 대 1

### 증거금 11조 8038억원 몰려

백종원 대표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일반 청약 경쟁률이 770 대 1을 넘었다.

29일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청약 경쟁률은 772.80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증거금으로 11조 8038억원이 모였다.

청약 건수는 67만 3421건, 청약 수량은 6억 9551만 9240주로 집계됐다.

앞서 진행된 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2216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734.67 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2만 3000~2만 8000원) 상당을 21.4% 초과한 가격이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물량의 99.73%는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당 또는 상당 초과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대표가 1994년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백다

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점포 수는 약 2900개다.

이외에 가공식품과 소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 사업도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한 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 상장에 도전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7.80 (+5.37)
↑ 코스닥	744.18 (+3.70)
↑ 금리(국고채 3년)	2.936 (+0.004)
↑ 환율(USD)	1385.45 (+0.45)